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239

JCCT 2022-7-3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Self-determination of College Students

박진영*, 이신복**

Jin-young Park*, Sin-Bok Lee**

요약 대학생들은 장기간 코로나 시기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진로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한편, 취업 위해 긍정심리자본과 자기결정성 요인에 대한 연구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 요인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기록내용 누락 등이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총 34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자기결정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효능감은 유능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낙관주의는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복력은 자율성 및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결정성 요인 중 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성은 진로준비행동의 대화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방향 및 정책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요어 : 대학생,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 자기결정성

Abstract While college students have great difficulties in preparing for their careers due to the long-term COVID-19 period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search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elf-determination factors for employment is insufficient. Based on thi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self-determination factors for college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for 350 people from April 1 to April 10, 2022, and a total of 345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five questionnaires for omission of record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ope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determination, but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ly on competence, and optimism had a positive effect on relationship. have been shown to affect And 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autonomy and relationship. Second, among the factors of self-determination, autonomy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ly on the conversation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irection and policy for college students to prepare for employment.

Key words : College Stud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esteem

*정회원, 참된 교육 연구소 대표 (제1저자)

**정회원,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초빙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6월 13일, 수정완료일: 2022년 7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8일

Received: June 13, 2022 / Revised: July 1, 2022

Accepted: Jul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baby1018@hanmail.net

Dept. of Liberal Arts College, Dankook Univ, Korea

I. 서론

2020년 2월에 국내에 발생된 코로나 19의 영향은 취업률의 하락과 경기 침체를 2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곧 사회활동으로 진입해야 하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진로 준비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출판되었다[13, 18, 20, 24, 38].

한편 현대사회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속에서 직업의 형태, 종류, 관념 등이 실시간으로 빠르고 활발하게 변화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구조는 빠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는 물론이며, 단순 작업이 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해 기계로 대체하고 있다[18]. 특히 인공지능 로봇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람의 역할을 비슷하게 해내거나 더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일상 생활 전반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직업군의 일부는 점차 로봇으로 대체되어 없어지거나 사라지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35].

또한, 최근 몇 년간 불어닥친 코로나 19의 팬데믹 현상은 사회형태의 변화 속도를 더 가속화시켰으며 현대 사람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서비스 및 메타버스 등의 환경을 겪고 있으며, 점차 적응하고 있다[1]. 이로써 대학생들은 이전의 시대와는 다르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조차 어렵고, 일자리의 수 자체도 줄어들고 있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직업군의 변화 및 일자리 양극화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23]. 한편 이와 같은 변화의 시대에서도 대학생들 중 일부는 진로 방향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계획대로 실천하여 졸업 후 진로 분야의 직업 진입이 수월하나, 그렇지 못한 대학생들의 경우 준비 없이 시간을 지체하다가 계획 없는 휴학 및 졸업 유예 또는 극단적으로는 진로 포기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및 개인적 측면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44].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있어 진로 탐색 및

설정에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빠를수록 더 이득이다. 상대적으로 늦은 결정을 한 대학생들이더라도 자신의 전공을 심분 활용하여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선의 진로 선택을 해야 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년의 대학 수학 기간을 보통 보내는데, 준비 없이 졸업 유예를 선택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선택하는 진로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현대처럼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 진로 준비는 진로가 빠르기 변화하기 때문에 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 중 진로 적응성이 높은 학생일 경우 진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긍정심리자본의 요소가 매개 역할로 작용한다는 것은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28]. 또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적응성에 각각 영향을 주며, 높은 긍정심리자본을 가진 학생일수록 진로 준비를 위한 행동을 더 잘 실천하고 진로적응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8].

한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 회로 또는 진로 선택 시 탄력성 및 유연한 사고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발휘된다[20]. 이는 자신의 진로 선택과 함께 삶의 전반적 태도, 대인관계를 훌륭히 형성할 때도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미래의 일들이 잘 진행될 거라는 희망과 긍정적인 사고,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다시 회복하고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높은 복원력과 효능감은 대학생들에게 진로선택, 직업 진입 준비에 좋은 연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같이 다양한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을 통한 연구와 진로 준비 행동 관련 연구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대학생 자신이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리학의 Seligman에서 유래되어 Luthans가 최종적으로 긍정적 심리에 대한 학문으로 확장 시키면서 나타난 개념이다[33]. Luthans가 제안한 개념은 낙관성, 복원력, 자기효능감, 희망을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로 제안하였으며, 개인의 긍정적인

인지 상태는 낙관성, 복원력, 자기효능감, 희망이라는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긍정심리자본은 네 가지의 상위 구성 개념으로 해석하였다[41, 50]. 이는 긍정심리자본은 네 가지의 요인인 낙관성, 복원력, 자기효능감, 희망 간에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43], 이에 따라 대학생인 자신이 긍정심리자본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훈련이나 학습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설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긍정심리자본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인 낙관성, 복원력, 자기효능감, 희망 간에 상호작용을 서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면서 여러 가지 훈련이나 학습으로 단련이 될 경우에는 긍정심리자본을 유지하고 관리 할 뿐만 아니라 향상 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 되어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구성요소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낙관성은 역경의 환경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궁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해석된다[15]. 한편 희망은 낙관성과는 약간 다른 영역의 개념으로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다시 시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20]. 그리고 낙관주의는 Seligman이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47]. 다음으로 두 번째 복원력은 Luthans이 긍정심리학에서 해석하기를 사람이 닦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마주치는 장애, 실패 또는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상황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어려움을 마주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최종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41, 43]. 사람들이 마주치는 여러 환경 속에서 실패, 역경, 불안 등을 겪거나 노출되었을 때, 쉽게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뜻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이전의 평온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도 포괄하는 것이다[15]. 또한, 복원력도 선천적으로나 태생적으로 타고 나는 영역이라기 보다는 대학생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노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다[39]. 셋째,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속한 상황에서 목표를 세우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한 인식 또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 또는 자신감 등의 확신을 의미한다[2, 15].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하고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게 된다. 게다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힐 경우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다[41, 43].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좌절, 방해 또는 장애 요인, 자기의심, 부정적 요인, 사회적 비평 등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이처럼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직면한 특수한 장애에서도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동기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및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4].

마지막으로 희망이란 사람들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실행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람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동안 올바른 경로를 탐색하고 필요한 계획을 설정하여 스스로 동기부여를 긍정적으로 진행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48, 50]. 게다가 Luthans와 Youssef(2004)가 주장하길 높은 희망 수준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행 과정에서 대안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33]. 즉,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대학생일수록 희망 수준을 높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이란 외부나 외적 영향 없이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능력을 뜻한다[10, 34].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성, 유능성 및 자율성에 대한 심리적인 욕망을 가진다고 Roca와 Gagné(2008)가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인 충분히 만족 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30].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요소들은 살펴보면, 우선 관계성은 공동체에서 사회적 의미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친밀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성향이며,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감정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30, 37]. 다음으로 유능성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재능을 발휘하거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때 스스로에게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한다[30, 46]. 마지막으로 자율성이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며, 바로 이 이론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17].

이를 증명하듯이 Yoon과 Rolland(2012)의 연구에서는 가상 커뮤니티 내에서 관계성과 유능성이 공유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는 것을 밝혔으며, 정경균과 이희승(2019)의 연구에서는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이 취업 준비 단계에서 유능성과 자율성이 실제 행하는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김주섭(2017)의 연구 역시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결정성을 세 가지로 재구성하여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간에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 형성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결정성의 하위 구성요소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자율성은 DeCharms(1976)이 제시한 개인적 인과이론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행동의 주체나 원인이 있길 바라고, 자신이 목표를 주체적으로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조절자라 생각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가치있고 중요한 지를 세울 수 있는 자유를 느끼길 원한다는 의미이다[11]. 둘째, 유능성은 효율동기이론에서 시작된 핵심적 개념이며,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능력이 충분히 있고 무언가 성취하기를 바라며, 기회가 주어질 경우 능력을 발휘하고 재능 및 기술을 쌓아가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다[29]. 즉, 유능성이란 욕구는 스스로에게 자신의 자질에 맞춰 도전을 최대로 시도하고, 행동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능성 욕구는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재능있고 실력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인지에 대한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또는 기술 그 자체와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으로 명명되기도 한다[34]. 특히 유능성에 대한 요구는 공동체내에서 사회적인 관계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만족 될 수 있다.

셋째,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발생하는 느낌을 의미한다[34].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흥미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며, 개인이 얼마나 공동체에 잘 속해 있는지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11]. 또한, 관계성이란 욕구는 개인이 지역사회나 자신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소속되어 있다는 니즈(need for

belongingness) 혹은 친애의 니즈(need for affiliation)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5].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정서 또는 인지 영역의 진로 관련 준비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행위 영역에서 진로에 대한 준비를 의미한다(강진, 2021). 사람들이 각자에게 맞는 진로를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이며, 그리고 계획된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충실하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행위로 옮기는 정도에 대한 것이다[38]. 추가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첫째, 진로의 결정을 합리적이며 적합하게 위해 필요한 행동과 둘째, 진로를 정한 후에 세운 진로 결정 항목마다 행위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으로 설명하였다[25]. 즉, 개인이 진로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하더라도 진로에 대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진로 목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13]. 이런 관점에서 진로상담분야뿐만 아니라 진로를 실행시키기 위한 진로지도에서 진로준비행동 요소에 대한 고려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앞서 진로준비행동에 인용된 김봉환과 김계현(1997)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당 의미를 개념화한 연구진이다. 추가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수집활동이 있으며, 해당 항목에는 자신의 능력, 성격, 적성, 흥미 등 개인 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직업정보 수집활동이 있으며, 직업 전망 및 현황, 취업 방법 및 취업방안, 필수 자격요건, 작업환경 및 승진경로 등 개인이 관심 가지는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아울러서 포함된다. 진로준비행동은 직업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이나 진로관여행동, 취업준비행동 등 유사한 다양한 개념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20, 25]. 또한, 김봉환과 김계현(1997)은 행동적인 차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진로에 대한 태도 또는 인지를 강조하던 이론과는 대비되었다. 최근의 국내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진로탐색이나 자기발전을 이루기 위해 입직과 관련된 준비행동, 탐색행동 및 계획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7].

특히 대학생들에게 진로준비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이 세운 미래의 진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준비를

표 1. 측정항목
 Table 1. list of measurement

변수	측정 항목	근거
희망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성취 할 수 있다.	[16, 20]
	목표 달성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해결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16, 20]
	다양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낙관주의	내 삶에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16, 20]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회복력	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화, 슬픔 등)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다.	[16, 20]
	힘든 일을 겪어도 빠르게 회복하는 편이다.	
	속상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알고 있다.	
자율성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편이다.	[27, 30]
	평소에 나다움을 유지하는 편이다.	
	나는 보통 나의 생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유능성	나는 수강 과목들의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수 있다.	[27, 30]
	나는 수강 과목들에서 교수님이 제시하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수강 과목의 과제를 매우 잘 할 수 있다.	
관계성	나는 대학에 와서 만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27, 30]
	나는 대학교에 와서 만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대학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거의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대화성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7]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행동성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7]
	나는 내가 선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세우며, 행동 실천뿐만 아니라 진로 수행 및 진로활동에 요구되는 자질들을 함께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준비 또는 실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24].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최근 1년 동안 개인이 수행한 직업탐색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항 10개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만들었다[32]. 또한, 항공서비스학과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을 준비계획활동, 정보탐색활동, 취업상담활동인 3개 요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31].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을 취업준비행동 및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인 2개 요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52].

위의 선행연구결과를 일부 선택 및 보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행동성 및 대화성인 2개 요소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표본설계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긍정 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 요인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연구자가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해 동의를 얻고 이용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받았다. 최종 35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기록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중심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인 응답지 5부는 통계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총 34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긍정심리자본과 자기결정성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긍정 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 요인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다음 <표 1>과 같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2. 연구가설

1) 긍정심리자본과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

긍정심리자본의 구성 요소들과 그 특성은 조직 및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30]. 그 중에서도 교육학 영역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대학생 등 학습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며, 학습기간 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되었으며, 게다가 학습자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20]. 더 나아가 학습자들의 학습몰입 및 학습동기,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24]. 이로써 대학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자기결정성 동기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22], 추가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자기결정성에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높은 자기결정성이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연구결과로 추가로 발견되었다[26].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가설의 설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H1.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자기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1]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자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2]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유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3]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관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자기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1]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자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2]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유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3]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관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는 자기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1]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는 자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2]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는 유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3]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는 관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은 자기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1]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은 자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2]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은 유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3]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은 관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자기결정성과 진로 준비 행동 간의 관계

진로 준비 행동은 진로 활동이나 교육에 있어 행동을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정이므로 마지막 단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8]. 그러므로 진로준비 행동이 선행적으로 잘 준비될 때 계획한 진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결정성과 진로 준비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가지 요인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자기결정성과 진로 준비 행동 간의 관계를 구조적 분석으로 해석하였고, 자기결정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42]. 추가로 직업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자기결정성 동기는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연구되었다[6]. 또한,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욕구가 강할 때 학생일수록 진로 준비 행동도 함께 커진다는 밝혔으며[49], 해당 결과는 자기결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이예진과 이기학(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가설의 설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H5.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5-1]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은 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5-2]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은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6-1]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은 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6-2]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은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7-1]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은 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7-2]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은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가설을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대신 복잡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공분산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이 이용되었다. 분석을 위한 도구로 SPSS 20.0과 AMOS 20.0이 이용되었다.

IV.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 121명(35.1%), 여성 224명(64.9%)으로 여성의 비율이 많았으며, 연령으로는 20~23세가 261명(75.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4~27세가 65명(18.8%), 28~30세가 11명(3.2%), 31세 이상이 8명(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로는 자연/공학계열이 167명(48.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인문/사회계열이 129명(48.4%), 예체능계열이 27명(7.8%), 기타가 22명(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은 1학년 94명(27.2%), 2학년 111명(32.2%), 3학년 54명

(15.7%), 4학년 86명(24.9%)이며, 대학의 소재지로는 수도권이 218명(63.2%), 비수도권이 127명(36.8%)로 나타났다.

2.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최종 수집된 데이터(n=345)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가 있다. 이 중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한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onbach's α 계수(0.6 이상)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 요인 적재값을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은 ±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홍세희, 2000).

판별 타당성은 유사한 두 개의 개념이 뚜렷이 구별되는 정도를 검증하며, 이를 위해 Fornell 와 Larcker (1981)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구성개념에서 AVE의 제곱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 측정 결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검증에 사용된 Cronbach's α 값은 0.658에서 0.925로 분포되어 권장치(0.6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14]. 또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인적재 값 역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 값을 이용한 판별 타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21]. 이러한 결과는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성 및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표 2>는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 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성 개념들 간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tems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측정오차	Cronbach's α	C.R	AVE
희망	희망3	0.803	0.293	0.817	0.833	0.625
	희망2	0.799	0.306			
	희망1	0.733	0.495			
자기효능감	효능3	0.818	0.26	0.788	0.836	0.633
	효능2	0.8	0.313			
	효능1	0.625	0.411			
낙관주의	낙관3	0.671	0.441	0.731	0.763	0.518
	낙관2	0.684	0.474			
	낙관1	0.717	0.416			
회복력	회복3	0.768	0.544	0.815	0.778	0.539
	회복2	0.802	0.523			
	회복1	0.749	0.467			
자율성	자율3	0.647	0.472	0.658	0.750	0.501
	자율2	0.656	0.413			
	자율1	0.689	0.435			
유능성	유능3	0.63	0.537	0.845	0.869	0.695
	유능2	0.952	0.091			
	유능1	0.856	0.267			
관계성	관계3	0.955	0.097	0.925	0.923	0.800
	관계2	0.877	0.269			
	관계1	0.861	0.24			
대화성	대화3	0.883	0.475	0.812	0.814	0.595
	대화2	0.879	0.468			
	대화1	0.721	0.467			
행동성	행동3	0.666	0.788	0.849	0.806	0.586
	행동2	0.96	0.127			
	행동1	0.831	0.535			

표 3.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요인	요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희망	0.791								
자기효능감	.592**	0.796							
낙관주의	.520**	.585**	0.720						
회복력	.525**	.444**	.441**	0.734					
자율성	.621**	.439**	.468**	.540**	0.708				
유능성	.426**	.440**	.255**	.314**	.381**	0.834			
관계성	.442**	.393**	.455**	.417**	.427**	.268**	0.894		
대화성	.393**	.363**	.291**	.313**	.260**	.251**	.383**	0.771	
행동성	.352**	.462**	.379**	.298**	.277**	.295**	.264**	.563**	0.766
평균	3.64	3.924	4.176	3.525	3.834	3.495	3.849	2.711	3.445
표준편차	0.819	0.74	0.744	0.971	0.727	0.853	0.961	1.238	1.106

** p<0.01, * p<0.05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에,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기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총 27개의 측정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적합도 검증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GFI(Goodness-of-fit Index) 0.9 이상이며,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5 이하, CFI(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에 대한 p 값(≥ 0.05) 등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chi^2 = 516.206$ ($df=288$), $p = 0.000$, $\chi^2/df = 1.792$, GFI = 0.903, NFI = 0.904, CFI = 0.954, RMSEA = 0.048로 모든 지수가 권장치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14].

4. 연구 모형 검증 결과

총 345개의 데이터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후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SEM)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결과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정도이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 = 638.697$ ($df=300$), $p=0.000$, CMIN/DF=2.129, RMSEA = 0.057, NFI=0.803, CFI=0.881, GFI=0.882, AGFI=0.851, TLI=0.921, IFI(Delta2)=0.933으로 나타나, 홍세희(2010)가 모델적합도 지수로 제시한 CFI, TLI, RMSEA를 중심으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 번째로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이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에 0.44($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1-1]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유능성에 0.241($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1-2]은 채택되었다. 또한, 관계성에 0.293($P<0.05$)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1-3]은 채택되었다.

두 번째로는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이 자기

결정성 중 자율성에 -0.05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2-1]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유능성에 0.319($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2-2]은 채택되었다. 또한, 관계성에 -0.099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2-3]은 기각되었다.

세 번째로는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가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에 0.159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3-1]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유능성에 -0.266($P<0.05$)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3-2]은 채택되었다. 또한, 관계성에 0.464($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3-3]은 채택되었다.

네 번째로는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이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에 0.189($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4-1]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유능성에 0.067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4-2]은 기각되었다. 또한, 관계성에 0.165($P<0.05$)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4-3]은 채택되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서의 대화에 0.399($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5-1]은 채택되었다. 또한, 행동에 0.706($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5-2]은 채택되었다.

여섯 번째로는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서의 대화에 0.09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6-1]은 기각되었다. 또한, 행동에 0.165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6-2]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서의 대화에 0.259($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7-1]은 채택되었다. 또한, 행동에 0.044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7-2]은 기각되었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Table 4. Hypotheses Testing Results

가설	경로	경로계수	결과
H1-1	희망 -> 자율성	0.440***	채택
H1-2	희망 -> 유능성	0.241***	채택
H1-3	희망 -> 관계성	0.293**	채택
H2-1	효능감 -> 자율성	-0.051	기각
H2-2	효능감 -> 유능성	0.319***	채택
H2-3	효능감 -> 관계성	-0.099	기각
H3-1	낙관주의 -> 자율성	0.159	기각
H3-2	낙관주의 -> 유능성	-0.266**	채택(부)
H3-3	낙관주의 -> 관계성	0.464***	채택
H4-1	회복력 -> 자율성	0.189***	채택
H4-2	회복력 -> 유능성	0.067	기각
H4-3	회복력 -> 관계성	0.165**	채택
H5-1	자율성 -> 대화	0.399***	채택
H5-2	자율성 -> 행동	0.706***	채택
H6-1	유능성 -> 대화	0.09	기각
H6-2	유능성 -> 행동	0.165	기각
H7-1	관계성 -> 대화	0.259***	채택
H7-2	관계성 -> 행동	0.044	기각

*** p<0.01, ** p<0.05, * p<0.1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 요인을 통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결과에서 각 요인들을 선택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요인들의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고 적절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 요인을 통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대학생 대상 맞춤형으로 적합하게 수정 정리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는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설문지로 정리하였다.

가설검증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자기결정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진로 준비에 대한 부분들에 노력을 한다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결정을 해야할 때 수동적인 상황이라 아니라 주체적으로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며 또한 관계적 측면에서도

향상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기회가 올 때 마다 인정을 받기 위해 그만큼 노력하고 성향도 커진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취 경험이 축적되어 미래에서 자신이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진 대학생들은 기회가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얻으려는 욕망 또한 커진다는 것을 반영한다.

셋째,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는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능성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성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상황을 많이 기대할 수록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도 더 신경을 쓰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한편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얻으려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를 들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수록 해당 회사의 취업 정보를 얻으려고 타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 유능성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은 자기결정성 요인 중 자율성과 관계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능성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역경을 직면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하며 자율적인 의지가 높아질 것이며,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결정성 요인 중 자율성이 진로 준비 행동과는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 방향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려는 자유를 가질수록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행동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더 주체적인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여섯 번째로는 자기결정성 요인 중 유능성은 진로 준비 행동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능한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여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고 이로써 진로를 준비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 요인 중 관계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서 대화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대화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을 통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시사점으로써,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했던 긍정심리자본과 자기결정성 모델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으로써는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계획하는 데 본 연구 결과가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다음의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본 연구 모형은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자기결정성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요인으로만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인들이 대학생의 진로 준비 행동과 관련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다른 학습자들과 달리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시기이므로 어떤 예상하지 못한 심리적 혹은 그 외 요인들이 매개될 수 있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 시기에 진행된 연구로써 코로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시기의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심리적 요인이 대학생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며, 이런 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가장 큰 한계점으로 단면적인 연구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과정부터 실제 입직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추적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밝혀진 요소들로 중재를 가했을 때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전후 연구이자 종단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진로준비 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Ahn, H. S, and Seo, J. H, "New Income Security in the Era of Uncertainty after the COVID-19,"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Vol. 26, No. 3, pp. 63-118, 2020.
- [2] Bandura, A,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 No. 3, pp. 359-373, 1986.
- [3] Bandura, A, and Locke, E. A, "Negative self-efficacy and goal effects revisite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8, No. 1, pp. 87-99, 2003.
- [4]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and Pastorelli, C, "Self 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Vol. 72, No. 1, pp. 187-206, 2001.
- [5] Chaturvedi, R. D., Munshi, A., Singla, V., Shahri, N, and Chanchani, S, "Study of adolescents' introversion-extraversion traits, need for belongingness and indulgence in social networking," *Indian Journal of Mental Health*, Vol. 2, No. 1, pp. 63-69, 2015.
- [6] Cho, S. Y, and Lee, H. J, "Motivation to self-determination on the vocational trainees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ouble-mediated effects of social support seeking and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4, No. 3, pp. 173-197, 2021.
- [7] Cho, Y. A, and Jeong J. E, "A Meta-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3, pp.129-150, 2017.

- [8] Choi, J. A, Seo, G. W, Lee, J. H, Cho, Y C, and Kim, M. K,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Teacher' Autonomous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Vol. 29, No. 6, pp. 759-771, 2020.
- [9] DeCharms, R. *Enhancing motivation: Change in the classroom*, Irvington, 1976.
- [10] Deci, E. L, and Ryan, R. M, "Self-determination theory: When mind mediates behavior," *The Journal of mind and Behavior*, Vol. 1, No. 1, pp. 33-43, 1980.
- [11] Deci, E. L, and Ryan, R. M,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Vol. 11, No. 4, pp. 227-268, 2000.
- [12] Fornell, C, and Larcker, D. F,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3, pp. 382-388, 1981.
- [13] Han, M. O, and Cho, G. P,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dentification, and Job-Seeking Anxie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Physical Majo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5, pp. 95-104, 2021.
- [14] Hong, S. H,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1, pp. 161-177, 2000.
- [15] Ji, M. S, and Lee, S. B, "The Effect of Kindergarten Teacher's Empathy Ability on Job Stress throug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1, pp. 240-255, 2021.
- [16] Jo, Y. S, "Development of Program to improve the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f University Student' and its Effec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529-546, 2016.
- [17] Joussemet, M., Landry, R, and Koestner, R,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parenting,"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Vol. 49, No. 3, pp. 194-200, 2008.
- [18] Jung, K. H, "Can I reach my students via technology?: A report on a teacher's existential crisis amid non-face-to-face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43, No. 2, pp. 245-271, 2021.
- [19] Jung, K. K, and Lee, H,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by College Student Majoring in Tourism and Job Preparation Behaviors," *Tourism Research*, Vol. 44, No. 1, pp. 217-240, 2019.
- [20] Kang J,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22, pp. 551-565, 2021.
- [21] Kang, H. C, "Discussions on the Suitable Interpretation of Model Fit Indices and the Strategies to Fit Model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2, pp. 653-668, 2013.
- [22] Kim, H. E, and Jang, E. J,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Participants in the University Learning Support Program on Learning Performance Mediated by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Learning Flow,"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5, pp. 383-401, 2021.
- [23] Kim, S. R, "Perceptions toward Job Changes due to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1, No. 11, pp. 528-542, 2021.
- [24] Kim, S. A,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Career Competency,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8, pp. 225-240, 2021.
- [25] Kim, B. H, and Kim, G. 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 311-333, 1997.
- [26] Kim, H. R, Cho J. A, and Eum J. J, "Influence of Adolescent Grit, Self-determina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elationship Support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Passion,"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4, pp. 1183-1194, 2021.
- [27] Kim, J. S, "The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barrier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4, No. 2, pp. 141–166, 2017.
- [28] Kim, M. S, and Seo, H. C, “Path Analysis of Geometric Psychology typ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6, pp. 355–364, 2018.
- [29] Kim, A. Y, “The Development of Academic Motiv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14, No. 1, pp. 111–134, 2008.
- [30] Kim, A. Y, “Self-Determin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in Educational Setting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4, No. 3, pp. 583–609, 2010.
- [31] Kim, H. J, and Choi, Y. 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on job preparation behavior,” *Tourism Research*, Vol. 45, No. 3, pp. 125–146, 2020.
- [32] Kopelman, R. E., Rovenpor, J. L, and Millsap, R. E, “Rationale and construct validity evidence for the Job Search Behavior Index: Because intentions (and New Year’s resolutions) often come to naugh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0, No. 3, pp. 269–287, 1992.
- [33] Lee, D. S, and Choi, Y. D, “A Study 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Organizations,” *korean management review*, Vol. 39, No. 1, pp. 1–28, 2010.
- [34] Lee, S. B, Moon, J. H, and Park, C, “A Study on Spontaneous Improvement Plan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3, No. 4, pp. 43–53, 2017.
- [35] Lee, S. H, “Recent AI development trends and future evolutionary directions,”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Vol. 12, pp. 30–31, 2017.
- [36] Lee, Y. J, and Lee, K. H, “Subtype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2, pp. 267–287, 2010.
- [37] Levesque, C., Zuehlke, A. N., Stanek, L. R, and Ryan, R. M,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6, No. 1, pp. 68–84, 2004.
- [38] Lim, S. W. Jung, H. S, and Song, M. S,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rofessor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4, pp. 386–395, 2021.
- [39] Luthans, F, and Avolio, B. J, “The “point”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Vol. 30, No. 2, pp. 291–307, 2009.
- [40] Luthans, F, and Youssef, C. M,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2004.
- [41] Luthans, F., Youssef, C. M, and Avolio, B. J.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Vol. 19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42] Park, M. S, “A Structural Analysis on the Social Support, Creativity, Self-Determin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who Participants in the Training Courses for Lifelong Educator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Vol. 20, No. 1, pp. 95–121, 2017.
- [43] Park, C. H., Lee, S. B, and Park, C,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service industry workers on the service performances through perfectionism and role conflict,”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19, No. 5, pp. 195–203, 2019.
- [44] Pyoun, J. S, “College Students’ Delayed Graduation and Employment Achievement : Focusing on the Effects of Employment-Oriented Delay on the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6, pp. 228–236, 2017.
- [45] Rhee, T. S, and Xiu J, “The Effect of Job Anxiety of Replacement by Artifici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Members’ Job Satisfac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Uncertain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7, pp. 1–9, 2021.
- [46] Roca, J. C, and Gagné, M, “Understanding e-learning continuance intention in the workplac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4, No. 4, pp. 1585–1604, 2008.

- [47] Seligman, M. E., Rashid, T., and Parks, A. C.,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Vol. 61, No. 8, pp. 774-788, 2006.
- [48] Snyder, C. R.,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Vol. 13, No. 4, pp. 249-275, 2002.
- [49] So, Y. H.,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elf-determination Need,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Preparatory Behaviors, and Career Decis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2, pp. 117-134, 2011.
- [50] Yang, G. Y., and Lee, S. B.,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Early Childhood Teachers' Behavioral Attitudes through Job Stre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1, pp. 39-49, 2022.
- [51] Yoon, C., and Rolland, E., "Knowledge-sharing in virtual communities: familiarity, anonymity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Vol. 31, No. 11, pp. 1133-1143, 2012.
- [52] Yoon, S. Y., and Lee J. S.,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 24, No. 6, pp. 487-506, 2020.